제9강 현대의 감각론

(1교시) J_jkJin05_040727_01.asf

◆ 모더니즘: 매체 자기 반성의 시대

르네상스 회화		바로크 회화
조각적	→	회화적
(촉지적)	→	(malerisch)
촉지적/광학적	→	광학적
3차원	→	2차원

<시스틴 예배실>, 미켈란젤로

<루벤스와 이사벨라 브란트>, 루벤스

- 18세기 독일의 레싱은 『라오콘』이란 책에서 예술 매체의 각 매체적 성격에 따른 장르 구별을 명확히 하였다: "회화는 공간예술, 음악은 시간예술"

- 과거 예술에서는 회화라는 양식을 통해 자연과 현실 세계를 탐구했지만 현대 예술에 오면 자기 매체의 특성을 스스로 탐구하고 반성하기 시작한다: "자기 지시성", "평면성", "추상성"

◆ 평면성, 추상성, 광학성

과거의 예술이 강박적으로 사물의 재현을 꾀한 것이었다면, 현대에 오면 그 가치가 전복된다. 칸딘스키, 클레 등 추상화가들의 작품에서 형과 색은 가시적 대상을 닮을 의무에서 벗어난다. 모더니즘은 과거의 보는 방식과 그리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완전 평면, 완전 추상'을 실현하고, 이로써 회화의 촉지적 성격은 광학적 성격으로 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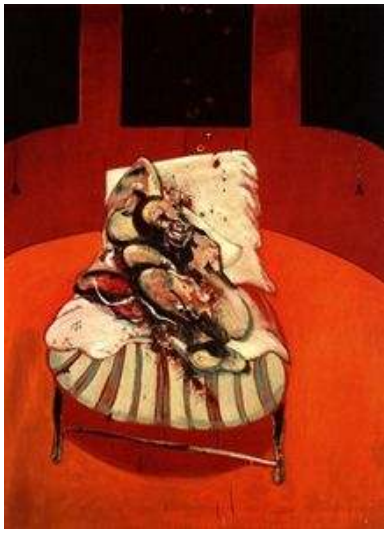
◆ 촉각의 부활: 미니멀리즘

'최소한의 예술'이라는 뜻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미술에 부각된 한 경향. 초기 M. 뒤샹의 기제품 오브제, A.라인하트에 의한 모노크롬의 회화 등 의식적으로 미적 가치를 저감시킨 작품군을 지칭하여 미니멀아트라 하였다.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예술상의 자기표현을 최소한도로 억제하는 것으로, 작품의 색채·형태·구성을 극히 단순화하여 기본적 요소로까지 환원해간다.

현실공간에 있는 입체작품에서 이 경향의 특징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정사각형과 정육면체 등의 단순한 형태에 일정 시스템을 채용, 동일 단위의 반복에 의한 연속체로 회장의 공간 전체를 구성하는 등, 작품의 규모가 크고 극히 모노톤적인 외관을 나타낸다.

(2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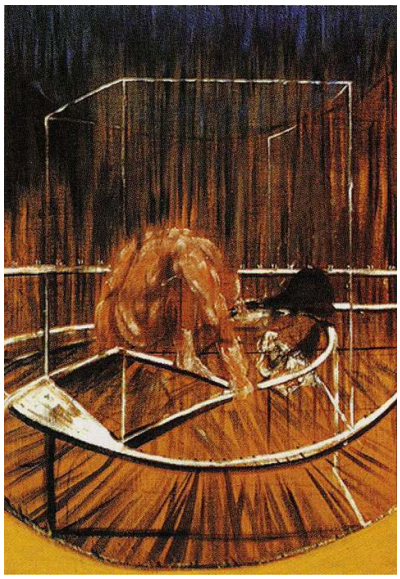
◆ 베이컨: 감각의 폭력



베이컨의 그림 속에 그려지는 것은 신체다. 기괴하게 생긴 살덩어리들이다. 하지만 그 신체는 대상으로서 재현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푸줏간의 고깃덩이 혹은 전쟁이나 교통사고로 형편없이 뭉개진 인체 따위의 재현이 아니다. 그것은 순수 형상, 즉 그 충격적인 형태와 색채의 효과로 우리를 감각의 체험 속으로 몰아넣는 어떤 모양일 뿐이다.

베이컨의 작품 효과는 '시각적'인 것이 아니다. 그 효과는 '촉각적'이다. 그 기괴한 형상들은 바라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준다. 그의 그림은 우리의 신경시스템에 직접 작용해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그로써 우리에게 어떤 체험을, 즉 감각을 느끼는 체험을 매개해 준다.

또한 베이컨의 회화는 폭력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전쟁의 폭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는 아일랜드의 내전과 유럽대륙을 휩쓴 2차 대전을 보았지만 그의 작품의 폭력은 그가 체험한 폭력의 재현이 아니다. 폭력의 재현은 그림에 어쩔 수 없이 구상을 도입하고, 그 결과 그림은 지루한 '스토리 텔링'을 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스토리로 우회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그는 재현된 폭력 대신에 회화의 폭력, "감각의 폭력"을 내세운다. 그의 작품의 잔혹성은 현실의 잔인함이 아니라 회화의 잔인함, 즉 색채와 형태가 행사하는 잔혹함이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폭력의 재현(representation)이 아



니라 회화를 통해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폭력의 현시(presentation)다. 굳이 이를 '재현'이라 부른다면, 아르토를 따라 잔혹함의 원본적 재현(representation originaire)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의 작품의 효과는 인식론적인 것이 아니다. 그의 작품은 존재론적 효과를 낸다. 여기서 우리는 '관조'라는 인식론적 에피스테메에 기초한 전통적인 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예술수용의 모델을 갖게 된다. 그의 작품은 더 이상 시각적 관조가 아니라 촉각적 체험의 대상이다. 아니,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경시스템을 때리는 또 하나의 주체다. 그것은 "변형의 주역이고 신체를 변형시키는 행위자다." 전통적인 구상회화나 현대의 추상회화는 "두뇌를 통과하지, 신경 시스템 위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형태의 변형은 할 수 있지만 신체의 변형을 이루지는 못한다." 하지만 구상과 추상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그의 작품은 다르다. 그것은 신경시스템에 직접 작용하여 그 쇼크 효과로 우리의 신체를 변형시킨다.